모래로 밥을 짓는다?



新 불교사자성어

⑯ 증사작반(蒸沙作飯)

'증사작반(蒸沙作飯)' 이란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든다' 는 뜻이다. 쌀이나 곡식을 쪄서 밥을 만드는 것(蒸米作飯)이 아니고, 모래를 쪄서,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뜻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의 '사상누각(沙上樓閣)', 공중에 떠있는 누각이라는 뜻의 '공중누각(空中樓閣)'과 같은 말이다.

'증사작반(蒸沙作飯)' 은 신라 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에 나오는 말이다. '발심수행장' 은 문장이 감동적이어서 발심하여 공부를 하게 하는 글이다. 앞뒤로 보충어가 몇 마디 더 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서쪽으로 간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쌀로 밥을 짓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줄은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는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가능한 일,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지도 않을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한다. 무지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이다.

옛말에 '고집불통(固執不通) 패가망신' 하고, '울뚝배기(화를 잘 내는 사람) 살인 친다' 는 말이 있다. 대체로 고집이 센 사람들은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한 번 주장한 것은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절대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야 자신의 주장을 겨우 바꾸는데, 이미 때가 너무 늦어서 결국엔 쪽박을 찬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대부분 오너의 옹고집, 자존심을 앞세운 쓸데없는 주장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다. '최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다. '불원장래', 곧 자신의 판단이 맞을 것으로 착각한다. 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잘 못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초한지〉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여 그 유명한 '사면초가' 라는 고사성어를 낳은 것은 항우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 반면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한고조가 된 것은 남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이다. 지혜도 없으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 하늘이 버린 사람', '신(神)이 버린 사람' 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원효 스님의 말씀과 같이 모래로 밥을 지으려고 한다.

무지(無智),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탐진치(貪瞋痴) 삼독 가운데 하나이다. 삼독(三毒)은 깨달음을 방해하고 해탈과 열반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이고, 분노, 짜증, 증오, 그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것도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지혜로 나아가는 방법은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해야 한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지능이 좋아도 잔꾀를 부린다. 잔꾀는 순간적으로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두세 번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지혜는 선(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은 물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지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어둡게 한다.

지혜 가운데는 부처님의 지혜가 최상의 지혜이다. 그것을 '불지견(佛知見)' 이라고 한다. 불교의 지혜, 불지견은 미혹을 끊고 진정한 삶의 길인 깨달음을 얻게 한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 영원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애착이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지견이다.

우리는 대부분 집착, 애착이 강하다. 남녀 간 사랑의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명예나 출세, 오래 살려고 하는 애착 등인데, 이런 것을 두고 어리석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증사작반을 한 셈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대덕은 어디서 와서 대아만을 내나?"



격절록 강설

⑯ 제 5칙 영가요석(永嘉遶錫) 1

[古則과 着語]

擧, 永嘉大師 到六祖 遶禪牀三匝 振錫一下 卓然而立 (魚行水濁) 祖云 "夫沙門具三千威儀 八萬細行 (大方之家 善收善放) 大德從何方而來 生大我慢" (便不屈人)

영가대사(永嘉大師, 665~713)가 6조(六祖)에 이르러 선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는, 우뚝 섰다. [물고기가 가니 물이 탁해진다.]

6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이라면 삼천 가지 위의와 팔만 가지의 세행을 갖춰야 하는데 [대선지식이라서 잘 거두기도 하고 잘 놓아주기도 한다.]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대아만을 내는가?"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다.]

[拈古와 着語]

雪竇便喝 乃云 "當時若下得這一喝 免得龍頭蛇尾" (賊過後張弓) 又再擧 遶禪牀三匝 振錫一下 卓然而立 (鳥飛毛落) 代六祖云 "未到曹溪 與你三十棒了也" (也是無風起浪)

설두가 바로 "할(喝)!"하고, 말했다.

"당시에 만약 일 할(一喝)을 했더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면했을 것이다." [적이 지나간 뒤에 활시위를 매는군.]

또 다시 선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는 우뚝 선 것을 거론하고는 [새가 날자 깃이 떨어지는구나!]

6조를 대신해서 말했다.

"조계에 이르기 전에 그대에게 30방을 쳤다." [역시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격이다.]

[評唱 1]

永嘉大師 本是講維摩經座主 因講維摩經 自悟說得話驚人. 因六祖會中 策禪師游三吳 預座 隨喜 見他講得 不同尋常座主見解. 因講散 遂詰其心地 所發之言 並同諸祖. 策曰 "仁者悟心 師是誰耶 受誰印可" 覺曰 "我聽方等維摩經論 並無師承 於維摩經 悟佛心宗 無人證據" 策曰 "仁者 威音王已前則得 威音王已後 無師自悟 盡是天然外道" 覺曰 "願仁者為我印證" 策曰 "我乃言輕 有第六祖師在曹溪 四方雲集 並是受法之人" 覺率策同至曹溪印可.

영가대사는 본래 〈유마경〉을 강의하던 좌주였는데, 〈유마경〉을 강의하다가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6조 회상의 현책(무주현책) 선사가 삼오(三吳)를 돌아다니려고 기쁜 마음으로 좌주자리를 맡겼는데, 영가가 강의하는 것이 보통 좌주들의 견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강의가 끝나자 그 심지(心地, 공부의 경지)를 캐물었는데, 내놓는 말들이 여러 조사들과 모두 같았다. 현책이 말했다.

"스님은 마음을 깨달았는데,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습니까?

현각이 말했다.

"나는 스스로 방등과 유마의 경론을 밝혔지, 결코 스승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마경〉에서 불심종(佛心宗,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종지)을 깨달은 것인데, 증거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스님은 위음왕 이전에 얻은 것입니다. 위음왕 이후에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것(無師自悟)이라면 모두 천연외도(天然外道)일 뿐입니다."

현각이 말했다.

"원컨대, 스님께서 저를 위해 인증(증명)해주십시오."

현책이 말했다.

"저는 미천해서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제육조사(第六祖師, 혜능)가 조계에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같이 모여 드니 모두 불법을 받으려는 사람들(受法之人)입니다."

현각이 현책을 따라 함께 조계에 인가받기 위해 이르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⑯ 믿음 편 16

행원(行願)의 화신 보현보살

"이보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네."

당나라의 조과도림(鳥窠道林, 741~824) 선사가 당시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백낙천(白樂天, 772~846)의 온몸을 떨게 만든 한마디다. 학문과 식견이 뛰어나 젊은 나이에 항주(杭州)의 자사가 된 백낙천은 당대의 고승으로 알려진 조과 선사를 찾아가 가슴에 새길만한 법문을 들려달라고 청했다. 선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자 백낙천은 선사를 향해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위에 인용한 말은 백낙천의 질문에 대한 선사의 답이다.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화다.

불교에서 실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이다. 대웅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왼쪽에 문수보살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있다. 문수와 보현은 여러 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 문수가 깨달음의 지성적 측면, 즉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은 이를 실천하는 행(行)을 상징한다. 지혜를 나타내는 청색의 사자와 실천의 상징 흰색 코끼리도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사찰에서 코끼리를 타고 있는 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법회의식에서 자주 불리는 찬불가 중에 '보현행원' 이 있다. 보현보살의 행원(行願)이 담긴 노래다.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을 끝없이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원이기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일까?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일컬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善財童子)는 53명의 선지식 가운데 문수보살을 맨 처음 만나 법을 구하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 지혜를 완성한다. 문수에게서 얻은 지혜를 보현의 실천을 통해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보현행원품〉이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은 ①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禮敬諸佛), ②여래를 우러러 찬탄하며(稱讚如來), ③널리 공양하고(廣修供養), ④업장을 참회하며(懺悔業障), ⑤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隨喜功德), ⑥설법해 주기를 청하며(請轉法輪), ⑦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請佛住世), ⑧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常隨佛學), ⑨항상 중생들을 수순하고(恒順衆生), ⑩널리 모두 회향하는 것(普皆廻向)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본래 지혜가 충만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깊이 믿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를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지혜와 실천은 불교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보현보살에 대한 신앙 역시 문수신앙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유행하지 않았다. 기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불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보현신앙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현행원품〉에서는 일체중생을 뿌리에, 불보살(佛菩薩)을 꽃과 열매에 비유하고 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로 뿌리를 적셔야 한다. 그 물이 바로 자비라는 이름의 감로수다. 자비의 물이 중생이라는 뿌리에 닿지 않으면 정각(正覺)의 꽃과 열매는 불가능하다. 이 경전이 매력적인 이유도 최상의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다. 보현행원이 바로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 는 지 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마이크 대금은 1년 써보고
아래의 내용과 추호도 다름없을 시 지불

1. 이태리 최고급명품마이크 직수입 한정판매, 시중에 있을시 일천만원 포상
2. 마이크와 50㎝ 떨어져야 수천만대의 시설소리로 업그레이드
3. 비싼시설 말고 마이크 하나만 바꾸어 수 만번의 염불소리를 신명나게 사세요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